

공자들이 VoIP를 채택하는 정도이다. VoIP가 음성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 된다면,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 특히 지배적 주거용 음성사업자인 BT의 수익과 비용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2004~2005년 동안, Ofcom은 VoIP 시장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사용(usage)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며, all-IP환경에서는 다른 데이터 트래픽으로부터 음성을 분리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영국에서 향후 몇 년 동안 중요한 비율을 차지할 VoIP에 대한 전망은, 중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좀더 정확하고 시의 적절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Ofcom, "The Communications Market 2005-3 Telecommunications", 2005. 7
- [2] 유여중, "영국의 2004년 통신시장 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 제16권 19호 통권357호, 2004. 8
- [3]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내 이동통신 산업동향", 2005. 4
- [4] 이은근, "인터넷전화 국내외 제도화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 제16권 17호 통권355호, 2004. 9

APII(아·태정보통신기반)에서 APIS(아·태정보사회)로의 이행: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 SIS)에의 APEC 기여

국제협력연구실 APII협력센터 주임연구원 백지원
(T. 570-4416, jwpaik@kisdi.re.kr)

1. 배경

2004년 11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16차 APEC 각료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제2차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2005. 11, 투니지아)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따라서, 국제정보사회(GIS: Global Information Society)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제1차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 SIS I)에 APEC이 기여한 'APEC역내 정보사회: W SIS에의 기여' 문서에 이어, 제2차 회의에 기여할 수 있는 문서를 APEC내 타실무그룹¹⁾들과 협력하여 TEL(정보통신실무그룹)이 작성토록 지시하였다.

따라서, WSIS II에 기여 계획인 본 문서는 APEC의 강점인 비구속성의 작업 방법(voluntary and non-binding way of working method)을 통해 달성한 APEC의 다양한 모범 사례(best practices) 및 성과 등을 담고 있다.

2. APEC 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공약: APII에서 APIS로의 이행

APIS는 APII 개발을 목적으로 한 APEC의 노력을 통해 실현되는 사회를 말한다. APEC 내 정보통신 관련 활동의 목표는 APIS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APEC역내 전반에 구축된 정보통신인프라를 통해 정보격차 문제가 해소되고, 시공간을 초월해 모든 사람이 다양한 정보를 생성·활용·배포하고 이에 접근이 용이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 구축을 의미한다. APIS의 구현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ICT 활용과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APEC 차원에서는 APII 이니셔티브가 채택되었다. APII는 역내 정보사회로의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정보통신인프라이며, APEC TEL은 APII에서 APIS로의 발전을 위해 정상 및 각료들로부터 받은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 아래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가. TELMIN 1(1995, 서울)에서 APII개발과 발전을 위해 서울선언에서 5대목표와 10대 원칙을 승인함
- 나. TELMIN 2(1996,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APII가 개념적 단계에서 발전했음을 확인하고, APII의 개발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위한 행동프로그램을 승인함
- 다. 밴쿠버선언(1997, 캐나다 밴쿠버)에서 아·태정보사회(APIS)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태 정보 인프라가 21세기 지역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 기초임에 동의함
- 라. TELMIN 3(1998, 싱가포르)에서 실제적인 프로젝트 실행과 정책조화를 통해 APII 현 실화를 가속화하기로 한 약속을 함
- 마. TELMIN 4(2000, 멕시코 칸쿤)의 행동 프로그램을 통해 APII가 APIS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민간·기업부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정보격차를

1) APEC내 실무그룹: 무역진흥(TP), 농업기술(ATC), 중소기업(SME), 산업과학·기술(IST), 인력자원개발(HRD), 에너지(EWG), 정보통신(TEL), 수산(FWG), 해양자원보존(MRC), 교통(TPT), 관광(TWG) 실무그룹.

해소시키고 성장과 접속과 연결성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언급함

바. TELMIN 5(1995, 중국 상해)에서 채택된 서울선언문 5대 목표와 10대 원칙이 APII 구축·확대 및 나아가 APIS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재확인함

3. 모범사례

가. APEC 작업 방법

APEC 활동의 성공 요인으로는 이슈 및 도전과제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 실질적이고 협력적인 접근방법을 택한다는 것과, 산·학·관 및 소비자 등의 다양한 APEC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구속력 없는 참여라고 할 수 있다. APEC은 뚜렷한 목표 아래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목표를 둔 협력체계 및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활동이 APEC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각기 다른 발전정도의 차이를 가진 회원경제체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적절한 합의도출을 이끌어 낸 APEC의 역량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APEC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도모를 위한 적절한 정책구조의 이해 및 개발을 위해 산업과 학계, 다양한 국제 및 지역 기구 등 APEC내 실무그룹간 긴밀히 협력하였다. 이렇듯, APEC 활동은 모범사례, 정보교환 및 APEC 회원경제체간 협력 프로젝트를 장려한다.

나. APEC 성과

WSIS의 제네바선언문 및 행동계획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원칙은 'ICT에의 유비쿼터스 접근성' 및 '모든 이들에게 ICT 기회로부터의 혜택 제공'에 대한 조항이라고 본다.

제3차 APEC정보통신장관회의(TELMIN 3)에서는 APIS는 GIS의 실현을 위해 기여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했고 본 개념은 WSIS의 선언문 및 행동계획의 정보사회실현과의 목표와도 일맥상통한다.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위 2개의 핵심 원칙 이행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다. 현재까지의 APEC 활동들 중, 특히 'APEC TEL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 보고서(Status Report on TEL Digital Divide Activities)' 및 'APEC 브로드밴드개발을 위한 핵심사항(Key Elements in Broadband Development for APEC)'은 WSIS 활동에 부가가치를 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1) APEC TEL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 활동보고서

2000년 5월 칸쿤 선언문²⁾을 통해, 정보통신부장관들은 TEL에 정보격차해소 노력에 박차

를 가하라고 촉구했다. 이 지시는 2000년 11월 브루나이 정상회의 선언에서 좀 더 확대되어, 세계경제의 정보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05년까지 APEC 지역내의 인터넷접근성을 세 배로 늘릴 것을 권고했다.

이의 지시에 따라, TEL은 1) TEL 25(2002. 3, 베트남 하노이)에서 승인된 '정보격차행동 청사진' 마련, 2) 인터넷접근성 지수에 대한 자료 취합 정기화, 3) TEL 회원국내 정보격차 해소를 겨냥한 정책 이행에 대한 2001년 내부현황과약, 4) APEC내 타실무그룹에서의 정보격차해소 관련 활동에 대한 외부현황과약, 5) 정보격차 및 기술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한 대책마련 워크샵을 3 차례에 2001년, 2002년에 걸쳐 개최하였다. 계속하여, TEL은 워크샵, 연수프로그램, 기술 지원, 정보교환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한 다각적인 정책 개발 및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2001년 회원경제체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 이행 관련 내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TEL은 성공적인 정책의 핵심요소들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1) 리더쉽: 쟁점해결을 위한 비전 제시 및 정부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역적 이니셔티브를 통한 관련 기관·기구 설립 노력
- (2) 파트너쉽: 산·학·관 차원에서의 협력관계
- (3) 정책 일관성: 경제 및 사회적 환경 조성의 확보를 위한 다방면의 정책 마련
- (4) 시장주식: 수요 창출을 통한 필요한 투자의 정당화
- (5) 지속성: 중자돈의 차원을 넘어선 서비스의 지속성 보장
- (6) 확장성: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의 소외지역에까지의 확대

또한, TEL은 2001년, 2002년에 개최된 3 차례의 정보격차 워크샵을 통해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아래의 3가지의 핵심정책을 내세웠다.

- (1) 접근성: 소비자들의 인터넷 이용 증가를 위한 인터넷 사용비용 절감
 -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 이용비용을 낮추고 제품과 서비스 공급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함. 따라서, 경쟁 및 자유화는 정책에 있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주요한 요소임
- (2) 인프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줄 통신인프라의 확대를 위한 호전적인 경제상황
- (3) 인력개발: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통한 숙련된 인력 확보 및 활용
 - 2) APEC 브로드밴드개발을 위한 핵심사항

1998년 TELMIN3 이후, 장관들은 농촌 및 서비스 소외지역에까지 브로드밴드를 확대할

2) www.apectelwg.org 참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TEL에 브로드밴드 정보통신인프라를 개발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2002년 TELMIN 5에서 장관들은 브로드밴드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의 경제 성장과의 긴밀한 연관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들은 'e-APEC 전략'과 'TEL 정보격차 행동청사진'을 언급하며, ICT에의 보편적 접근에 있어 쟁점이 되는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한 APEC 각료 및 정상들의 지시 사항을 재 언급했다. TELMIN 5의 지시에 따라, TEL은 워크숍, 운영그룹내 활발한 논의 진행, 테스트베드 프로젝트 등과 같이 브로드밴드 관련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

APEC 회원경제체 중에는 브로드밴드 구축에 있어서의 선진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브로드밴드 선진 회원국들은 브로드밴드 관련 정책 시행, 접근성, 활용 및 정부의 역할 등의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보고르 및 브루나이 목표 등의 APEC 정상 지시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인터넷 이용을 극대화 하도록 브로드밴드의 자국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데 힘썼다. 회원국들의 이러한 노력은 지속적인 경쟁 및 자유화를 촉진하고 규제틀을 마련했으며,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와 서비스이용에 있어 신뢰를 심어주었다.

4. WSIS 행동계획에 대한 APEC의 대응

2003년 12월, 제네바에서 열린 첫 번째 WSIS는 11가지의 행동노선(Action Lines)을 내세운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본 행동노선은 2001년 APEC 정상들이 채택한 'e-APEC Strategy'와도 일치한다. e-APEC 전략은 APIS 발전을 위한 개별회원경제체와 다양한 APEC 내 실무그룹들의 활동 지침이 되고 있다. ICT로부터 받는 혜택에 대한 논의는 정보사회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TEL과 전자상거래운영그룹(ECSG: e-Commerce Steering Group)은 APIS 발전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WSIS 행동노선 수행의 틀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제네바 정상회의 이후, 18개월 동안 APEC은 제네바행동계획 이행에 있어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다음은 APEC의 구체적인 행동노선에 대응하여 수행했던 다양한 프로젝트 및 활동들을 명시하였다.

■ 행동노선 1: 발전을 위한 ICT 촉진에 있어서의 정부와 이해 당사자들의 역할

APEC 철학에 따르면 강하고 활기찬 경제체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 즉, 비즈니스 및 산업분야, 학계, 정책연구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APEC은 이들 구성원을 APIS 구축 노력에 활발히 참여시키고 있다.

APIS로부터 받는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좋은 정책과 선정(good governance), 투명한 정책결정 과정 및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APEC의 활동은 각각의 WSIS 행동노선, 특히, '행동노선 6' 아래에 명시하였다.

민간부문과 사용자대표자(user representative)들은 TEL 및 ECSG 관련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민간부문과의 토론을 권장하는 논의의 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산·학·관 등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 속에 APEC은 2차례의 '고위급 전자정부 심포지엄'과 'e-비즈니스 얼라이언스 포럼' 등 정보사회를 주제로 한 다양한 워크숍을 개최했고 이들은, 대부분의 APEC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민·관 협력 아래 추진되었다.

APEC 전체 또는 실무그룹 차원에서는 APIS 발전 정도 및 APIS 구축을 향한 활동들이 올바르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한다. 이러한 활동 중에는 정보격차행동청사진에 있어 성과평가를 위한 'APEC역내의 인터넷접근성 측정 보고서'가 있다.

■ 행동노선 2: 정보인프라 - 정보 사회의 핵심기반

APIS 실현을 위한 APEC의 비전은 모든 이들이 규제 및 상호운영 논란에서 벗어나 쉽고 접근 용이한 ICT 네트워크 발전에 근거를 두고 있다. WSIS I 이후, APEC은 e-APEC 전략 아래 '정보격차행동 청사진', '브로드밴드 원칙', '차세대 정보교환' 등과 같은 전략을 개발했다. 또한, 인프라개발을 위한 많은 규제적 논의는 '행동노선 6'에서 포함하고 있다.

■ 행동노선 3: 정보와 지식의 이용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APEC은 회원경제체들에게 전자정부 실행을 권유했다. 이와 관련된 활동들의 자세한 내용은 '행동노선 7'에서 포함하고 있다.

'행동노선 2'에 언급된 인프라 관련 내용은 모든 시민,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정보와 지식에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 정보격차 관련 내용으로 회원국들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계층이나 소외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ICT에의 용이한 접근을 위한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의 맥락에서 APEC TEL은 '웹사이트 접근' 및 '콘텐츠 개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행동노선 4: 능력배양

APEC은 ICT활용에 있어 능력배양과 인력양성에 있어 ICT 활용방안, 이 두 가지 이슈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개도국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TEL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해 왔다.

- APEC Telecenter Development Program
- TEL e-Commerce Skills Standards Project
- Smart Community Project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HRD Training Project
- Regulatory Training Program
- Establishment of CIO Training Model Network for e-Government Development
- Edu Pact: An alliance for IT Literacy and Skills Development
- SME Internet Safety Training Program
- ICT Vendor Training Material Database
- E_University Network for HRD for e-Government
- IT Security Training Material Database
- CERT Capacity Building Project
- Cybercrim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Capacity Building Project

■ 행동노선 5: ICT 활용의 신뢰성과 보안 강화

‘APEC 사이버보안전략’을 통해 APEC 역내 정보네트워크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위에서 제시된 능력배양 활동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활동은 ‘APEC 사이버보안전략’ 이행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 사이버보안 워크샵
- Compendium of IT Security Standards
- IT보안 관련 APEC 정보보호 태스크그룹(eSTG) 웹사이트
- e-Commerce를 관할할 수 있는 자격증 가이드라인 출판(Publication of Guidelines for Schemes to Issue Certificates Capable of Being Used in Cross Jurisdiction e-Commerce)
- 현재 다양한 언어로 번역중인 SafetyNet and SafetyMail booklets 출판
- eSTG회의에서의 정보보호 관련 이슈의 활발한 논의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모든 사용자는 개인의 정보 및 자산 보호 방법에 대한 정보로부터의 접근이 가능해졌고, 타 회원경제체 뿐만 아니라 EU회원국과도 법적인 제재 없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2006년까지 각 경제체내 CERTs를 가동시키고 사이버범죄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과 같은 APEC 활동들은 ICT 활용에 신뢰를 심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 APEC Online Voluntary Consumer Protection Guidelines
- APEC Privacy Framework
- Provision of information resources on combating SPAM
- APEC Principles for Action against Spam
- APEC Implementation Guidelines for Action against Spam

APEC, 특히, TEL과 ECSG,은 정보보안,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 작업반 및 스팸태스크포스(Working Party on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and SPAM Task Force)를 포함한 OECD와 관련 이슈에 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신뢰와 정보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현재 정보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다.

■ 행동노선 6: 환경 조성

APEC은 다양한 경제체를 회원으로 둔 국제기구로서, 각 회원국간의 다른 정책, 법적 및 규제적 접근법과 상호운용기술의 갈등 및 문제점 등을 인식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역내 일관된 환경조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활동들이다.

- Stocktake of Progress Towards the Key Elements of a Fully Liberalised Telecommunications Sector in the APEC Region
- Spectrum Policy and Management Database
- Comparison of Equivalence of Selected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on Conformity Assessment for Telecommunications
- Compliance and Enforcement Principles
- Best Practices for Implementing the WTO Telecommunications Reference Paper
- Regulatory Structures Analysis and Options
- Paperless Trading Initiative
- e-Commerce Strategies for Rural SMEs in APEC
- Global B2B Interoperability Project

이와 더불어, APEC은 WTO 정보통신참조문서 이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고 '규제자 라운드테이블 (Regulatory Roundtable)'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 관련 많은 활동들은 '행동노선 7'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프라이버시, 규제프레임워크

‘행동노선 5’에서 다루었다.

■ 행동노선 7: ICT의 응용-삶의 모든 면에 미치는 혜택

최근 많은 APEC 프로젝트들이 e-APEC 전략 이행의 일환으로 전자정부 및 전자상거래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음은 전자정부 활용 관련 활동들이다.

- APEC e-Government Strategy
- APEC e-Government Work Program
- e-Government High Level Symposium
- e-Government University Network in HRD for e-Government
- Electronic Certification Services for e-Government
- e-Government Research Project
- Dialog on e-Government and
- Integrated e-Government for Local Government Project

전자상거래 응용개발을 위한 활동들은 아래와 같다.

- APEC Blueprint for Action on Electronic Commerce
- e-Commerce Awareness Seminars
- TEL e-Commerce Skills Standards Project
- Paperless Trading Initiative
- e-Commerce Strategies for Rural SMEs in APEC
- Global B2B Interoperability Project
- e-APEC Strategy for SMEs

전자환경(e-environment) 응용개발을 위한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 APEC i-Disaster Warning Systems development Strategy
- APEC i-Disaster Warning Systems Guides

이와 더불어, APEC은 e-APEC 전략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포괄적인 정보화 전략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 행동노선 8: 문화적 다양성과 독자성, 언어적 다양성과 지역 콘텐츠

21개의 APEC 회원경제체는 각기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다. APEC은 회원경제체간 문화교류 촉진을 목표로 문화초점네트워크(Cultural Focal Points Network)를 최근 설립하게 되었고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APEC 영화페스티벌 개최를 올해 계획하고 있다.

각 APEC 실무그룹들은 개별적으로 프로젝트 및 그와 관련된 활동에의 잠재된 문화 및 언

어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웹사이트 접근에 관한 워크샵'에서는 영어에 편중되어 있는 웹사이트 개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논의도 포함 돼있었다.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관련 모든 자료들이 APEC의 공식 언어인 영어로 작성 되어 각 회원경제체는 자국의 언어로 번역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는 콘텐츠의 다양성 개발 노력을 위한 '콘텐츠 개발 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다.

■ 행동노선 9: 미디어

'행동노선 2'와 '3'에서 논의된 활동들은 뉴미디어 개발을 촉진을 목적으로도 수행되었고, 특히, 브로드밴드접근 용이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루고 있다. '행동노선 5'에서 논의된 사이버범죄 이니셔티브는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해 다루었다.

■ 행동노선 10: 정보사회의 윤리적인 면

'행동노선 5'에서 논의된 사이버범죄 및 프라이버시 이니셔티브는 ICT의 윤리적인 이용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APEC IT 보안 연수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의 교육 모듈은 ICT 활용에 있어 개인 및 기관 윤리를 다루었다.

APEC과 개별회원경제체는 '행동노선 3'과 '4'의 활동을 통해 ICT의 보편적 접근과 안전한 이용을 위한 그들의 윤리적 의무를 보여주고 있다.

■ 행동노선 11: 국제 및 지역 협력

APEC 정상들은 APEC 실무그룹 전반에 걸쳐 e-APEC 전략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참여를 권고했다. 본 전략은 또한 회원경제체들이 정보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과 이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APEC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개도국을 겨냥한 프로젝트이거나 또는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을 포함하는 프로젝트가 많다. 그 예로, 'CERT 능력배양 워크샵'은 현재 CERT 기능 또는 활동이 없는 몇 개의 개도국에서 개최되었다. 워크샵에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의 대표단 출장비를 지원했던 '사이버범죄입법안 및 집행능력배양 프로젝트'도 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5. 결 론

APEC은 APIS 구현을 위해 APII 개발 및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는 APEC과 WSIS가 지식과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서로가 승수효과를 거두고 공동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1] <http://www.apectelwg.org>
 [2] <http://www.apec.org>
 [3] <http://www.itu.int>

영국 소비자의 통신서비스 이용 현황

혁신전략연구실 주임연구원 이영중
 (T. 570-4078, dudwhd0812@kisdi.re.kr)

1. 개 요

Ofcom은 영국의 통신서비스 시장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2005년 7월에 발표했다¹⁾. 라디오, 통신, 텔레비전 서비스별로 주요 테마와 시장 현황 등의 내용과 함께 시장 이해의 측면에서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행동에 관한 내용 포함시켰다. 보고서에서는 소비자의 통신서비스 이용 현황을 통해 파악된 주제별로 관련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본고는 Ofcom의 보고서 중 소비자의 통신서비스 이용 현황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2. 통신서비스 이용 주요 현황²⁾**가. 통신비 지출 증가**

영국에서의 가계 월 통신비는 2000년 약 £50에서 2004년 약 £60로 4년 동안 20% 정도가 증가하였다. 2004년 기준으로 가계지출 중 2.9%를 통신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전화 통신비는 2000년 £28.36에서 2004년 £24.67로 4년 동안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이동전화와 인터넷 통신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4년 이동전화와 인터넷 관련 통신비는 2000년에 비해 약 2배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 Ofcom, "The Communication Market 2005", July 2005

2) 소비자는 통신서비스 최종 이용자를 의미함. 많은 유형의 소비자가 있을 수 있으나 가계, 소규모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소비자를 한정하며 본 보고서에서는 가계 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